

어디서나 빌리고 반납 '공유 텀블러' 사용하세요

광산구, 커피숍과 협업 다회용 컵 재사용 체계 구축 친환경 소재 '다담컵' 제공...수거·세척·재사용 지원

광주 광산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섰다.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키보드처럼 대여·반납이 편한 '공유 텀블러'를 도입한 것으로,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실천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청사 주변 카페들과 협업해 다회용 컵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1회용품 안 쓰는 문화 조성을 위한 '용기내 광산!'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도 중 하나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 순환 실천은 물론 '공유'까지 더한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광산구와 카페들이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회용 컵을 어디서나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광주에선 첫 시도다.

광산구는 '광주시 광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구청사 주변 참여 카페 7곳을 모집했다. 이어 사업 참여 카페들이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 540여 개를 공급했다.

'광산 다담컵(다시 담아 쓰는 컵)'이란 이름이 붙은 공유 다회용 컵은 재생 및 재사용이 가능한 목재와 폴리프로필렌 등 복합소재로 만들어졌다. 냉·온 음료 모두 취급이 가능하고, 환경호르몬(BPA)도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달부터 사업에 참여한 카페 7곳에서는 음료를 포장해 가져갈 경우 '광산 다담컵'에 제공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뒤에는 광산구청 1층에 마련된 수거함이나 참여 카페 중 가까운 곳에 반납하면 된다. 수거함에 모인 '광산 다담컵'은 원활한 재사용을 위해 전문 세척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뒤 세척해 각 카페로 배송하는 구조다.

기존에도 음료 포장 시 다회용 컵 대신 보증금을 받고 다회용 컵에 제공하는 곳은 많았다. 하지만 빌린 곳에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카페 입장에서도 회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고충이 컸다.

'광산 다담컵'은 사용부터 수거, 세척 및 배송, 재사용까지 꼼꼼한 체계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 개인 다회용 컵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편하게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다회용 컵 구매를 남발하거나 가지고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와 보완점 등을 살핀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다회용 컵 사용 실천에 동참한 카페에 혜택을 제공하는 '용기내 광산'과 '광산 다담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용기내 광산'에 참여하고 있는 카페는 41곳으로, 광산구는 내년 30곳을 추가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산 다담컵' 공유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겠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광산 다담컵 재사용 사업이 일상 속 실천과 시민 참여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아이스팩 재사용, 폐건전지, 종이팩 수거 보장제,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및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 등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광산구 한 직원이 구청 1층에 마련된 수거함에 사용이 끝난 '광산 다담컵'을 반납하고 있다.

성과를 인정해 광산구를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송정역시장·월봉서원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월봉서원 등 지역 대표명소를 구현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광산GS24'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7주간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받은 광산구 직원들이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 '제페토(ZEPETO)'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광산GS24'란 이름은 24시간 언제나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확장 가상 세계 속 월봉서원, 1913송정역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제페토'에 나만의 아바타로 접속한 뒤 장소를 검색하면 손쉽게 입장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광산구 대표 명소를 가상공간에서 만나고 즐기는 비대면 관광·놀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확장 가상 세계를 통해 지역 명소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게임, 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 안내, 각 동과 부서별 홍보 등으로도 확장 가상 세계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광산구, 행안부 최우수상 수상

광주 광산구는 "소상공인 1% 희망대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성과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 7대 중점추진과제 중 '2021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1% 희망대출은 광산구가 지역 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광산경제백신회의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한 대표적 '경제백신'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1%의 이자로 긴급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 648명이 46억여원의 대출을 받았다.

행안부는 민·관 연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광산구의 성과를 주목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는 '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 종로구 등 전국 21개 지자체가 공모에 선정돼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희망대출' 선도 기관인 광산구도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 춘천시 등 19개 지자체가 광산구의 1% 희망대출을 배우기 위해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역을 넘어 전국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선 기여를 높이 평가해 광산구를 '2021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이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비아농협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점검 호평

재배농가 직접 방문 분전반 차단기 등 화재 예방 점검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이 매년 겨울이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재배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29일 광주비아농협에 따르면 시설하우스의 경우 매년 겨울철이면 온풍기 사용 등으로 과다한 전력을 소비하다 보니 노후된 전기시설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비아농협은 12월 한달간 관내 80여세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전기회로를 비롯한 분전반 차단

기 등의 안전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전기 사용의 기초지식과 화재 예방 교육까지 병행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전기 관리 상태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다.

이번 비아농협의 전기안전점검은 2015년에 시작됐으며, 올해로 6년째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비아농협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지난 6년간 단 1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용무(운남동) 조합원은 "지난해 수해 피해로 침수된 시설하우스 배전설비를 수리해 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로봇서빙·폰주문...광산구 골목상권 스마트화

수완나들목·어룡동 상가 구축...2년간 202곳 기술 보급

광주 광산구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골목상권의 '스마트화'를 앞당기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수완나들목 상가와 어룡동 상가 등 2개 상권 113개 점포에 스마트상가 구축을 완료했다. <사진>

중기부는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된 소상공인 점포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장비 보급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지역 최초로 공모에 선정돼 선운지구 상가와 하남2지구 상가 89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상점을 구축했다.

올해도 2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9700만 원을 확보하고, 수완나들목 상가와 어룡동 상가 113개 점포에도 스마트기술을 입혔다. 2년 만에 4곳에 202개 스마트상가를 조성한 것이다.

올해 사업이 추진된 2개 상권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나르는 '서빙로봇' ▲스타일링·피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한 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미러' ▲스마트 기기로 메뉴를 안내하고 신제품을 홍보하는 '디지털 메뉴보드' ▲터치식 무인 결제 단말기 '키오스크' ▲모바일 기기로 예약·주문·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이 도입됐다.

광산구는 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 제품, 지역 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이



니지'도 설치할 예정이다. 송순호 수완나들목 상가 상인회장은 "서빙로봇이 음식을 손님에게 배달해 반응이 좋다"면서 "키오스크, 광고 보드, 3D 홀로그램 등도 손님의 이목을 끌면서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대면과 디지털 기술 집합체인 스마트상점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골목상권이 처한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더 똑똑해진 광산구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